

세계가 주목한 신안군 생태교육 제2교육관 증축... 'K-생태' 선도

지자체 최초 생태교육원 설립 생태교육전문가 183명 양성 강좌 2623회·7만여명 교육

신안군이 '생태 교육'의 요람이 된 생태교육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태교육원을 설립해 교육을 진행한 신안군은 최근 세계생태교육을 선도할 생태교육원 제2교육관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1004섬 신안군은 세계최고의 자연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신안군에 'K-생태'를 창조해 '세계생태의 헤게모니를 선도'하고, '생태를 통한 인류사회의 공헌'을 기본정신으로 지난 2015년 신안군

생태교육원을 설립했다.

신안군생태교육원은 생태교육관,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공원, 갯벌영상관, 생태밥상(식당), 생태캠프(숙소), 갯벌체험센터, 자연정화습지, 생태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생태체험캠프, 교사 생태교육 특수분야연수 등을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생태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생태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중학생에게는 자유학기제의 동아리활동,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체험교육, 대학생에게는 생태아카데미, 시민들에게는 생태특강과 생태트레킹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생태교육원이 진행한 생태교육으로 생태교육전문가 183명을 양성했고, 생태교육프로그램

114개를 운영해 생태강좌 2623회를 진행했으며, 생태교육에 7만13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생태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시설의 부족함이 대두되어 제2교육관을 증축해 원활한 생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신안군생태교육원은 신안군의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생태교육의 창조적 비전을 제시, 신안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생태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K-생태'를 창조하고 세계생태교육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제2교육관의 신축으로 신안군생태교육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교육원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며, 교육시설을 개방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18일 열린 신안군생태교육원 교육시설 준공식에서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 극복 열쇠"

올 39개 사업, 1122명 일자리

해남군이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22년 39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122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다.

해남군은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민간취업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직접일자리 788명, 민간취업 연계지원 266명과 창업 지원 58명 등 총 1122명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에 639명이 참여해 관내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 청년일자리를 전담하는 체계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의 투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민선 8기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선 8기 4년간 일자리창출·지원에 대한 목표 설정과 함께 세부계획을 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열쇠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업·기업 정책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변화하는 중앙부처의 고용정책과 주민,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해 조직역량을 더 강화하고 빈틈없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어울림도서관

바로대출서비스 시행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 목포시와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신속하게 빌려볼 수 있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는 목포시통합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서점과 희망도서를 선택한 후 서점으로부터 대출 가능 승인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서점에서 무료로 대출하면 된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대출 후 반납된 도서를 구입해,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신청 권수는 매월 1인당 2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이다. 다만 도서관 소장자료, 개인학습서, 5년 이상 출간이 경과된 도서 등 도서관 장서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정착 큰 도움

1404㎡ 규모 스마트온실 운영

창업농에 임대 농업경영 실습

무안군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에 보탬이 되고 있다.

무안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1404㎡규모의 연동 스마트온실로 조성돼 양액재배 시설,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 난방시설 등을 갖췄으며, 현재 2명의 청년농업인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본인의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직접 영농계획을 세우고 재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의 농업경영을 실습하고 수행한다.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기술지도와 현장컨설팅, 임대농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 모습.

운영비 등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있다.

김산 군수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농업 신기술을 습득

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진민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

여성단체협의회 21~12월 9일 4천5백세대 2만8천포기 전달

신안군이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신안군은 지난 21일 압해읍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각 14개 읍·면에서 '2022년 사랑의 김장 나눔'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진자) 주관으로 시작하는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김치를 제공,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4개 읍·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유관기관, 공무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해 총 4500세대 2

만8000포기를 담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신안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스티로폼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장 종이상자를 제작 후 배부하였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좋은 재료 선정부터 행사장 주변 위생까지 철저히 검수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전진자 회장은 "14개 읍·면 회원들과 참여자들이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김장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하니 매우 감사하다"라며 "김장 나눔과 함께 연말연시에 주변을 더욱 살피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신안이 되도록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새로운 진도 건설' 행정 역량 집중

본예산 4607억원·일반 4510억원 복지·산업 혁신 등 5개 분야 역점

진도군이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2023년을 도약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진도' 건설에 나선다.

진도군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보다 301억원 증가한 4607억원으로 일반회계 4510억원과 특별회계 97억원이다.

일반회계 중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5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110억원 ▲교육 분야 26억원 ▲문화·관광 분야 384억원 ▲환경 분야 320억원 ▲보건분야에 77억원 ▲국도·지역개발 분야 179억원 ▲예비비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각각 773억원과 136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7.34%를 차지했다.

내년 역점시책으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진도군은 내년을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진도군 100년의 앞을 내다보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줄이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했다"며 "군민들이 더 나은 삶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은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군 노령 진도개 300여마리 사료비 지원

17살 이상 마리당 19만원씩

진도군이 노령 진도개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령견 대상 복지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했다.

농가 방문 현지 확인 등 진도개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진도개 중 생후 7살 이상인 노령견이 지원 대상이다.

1마리당 19만원씩 총 300여마리에 대한 사료비를 보조로 지원했다.

군은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편성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군은 동물복지·보호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복지 문



진도 의신면 '돌아온 백구상' 조형물.

화 정착 기를 마련과 진도개 보호·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와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해수청, 항만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건설공사 현장 6개소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항만시설 및 건설공사 현장 1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목포해수청은 목포항 및 흑산도항에 위치한 안벽 등 계류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인 여객터미널에 대해 균열, 파손 등 시설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소방, 전기 분야와 관련된 안전설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공사 등 건설공사 현

장 6개소에 대해서도 수방 자재를 포함한 현장 관리실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해 한파·대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이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동현 목포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점검 후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